



할렐루야!

“2024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베엘선교교회 목회사역과 베엘선교센터

멕시코 티후아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루이스 목사가 검찰청 변호사를 사직하고 Full Time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13년동안 멕시코 선교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수고하며, 멕시코 청소년들과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겼으며, 신학교 졸업 후 5년동안 동사목회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목회와 선교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의 자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멕시코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선한목자 국제신학교는 목회자를 위한 야간 신학반과 어린이 목회사역을 위한 수요 사모반을 중심으로 6학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 1학기 후에는 첫번째 졸업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적으로 출석 성도의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에 나가게 되어 결심했던 교육의 기회를 미루고 휴학중인 상황입니다.

2월 5일(월) 개학하는 목회자 신학반에 15명의 입학생들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감사 제목들을 나눕니다.

☑ 선한목자국제 신학교 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바닥 났지만 엘피도 성도를 통해 계속 공사가 진행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월말까지 내부공사를 마치고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청소년 연합예배(Los Pescadores:어부들) 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8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기독교 교육, 문화, 리더쉽 훈련을 받고 각자의 교회에서 차세대 리더들로서 활동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성탄선물을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4. 기도제목

- 1) 루이스 목사와 아나 사모를 통해 벤엘선교교회 목회사역과 벤엘선교센터 사역이 활성화 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 2) 목회와 선교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을 이루도록.
- 3) 선한목자 국제신학교가 2월 말까지 건축이 마무리 되게 하시며, 새학기에도 신입생을 보내 주시도록.
- 4) 2024년 전반기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멕시코 티후아나 시에서 박영완, 정기영선교사 드림